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 큰 집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귀히 쓰는 그릇들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들은 금 그릇 은 그릇 같고, 어떤 그릇들은 나무 그릇 질그릇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지극 정성으로 돌보고 가장 좋은 일에 사용하지만, 우리가 천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기울이지 않거나 아예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약한 것들(1)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2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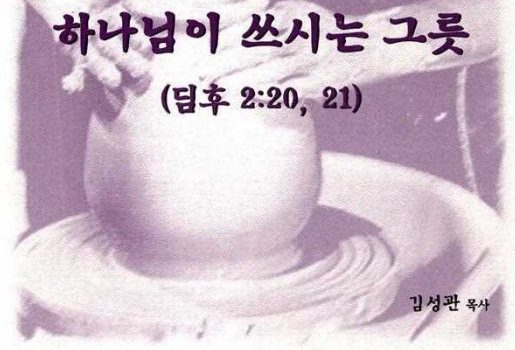
어떤 종류의 그릇

오늘은 2005년도가 시작되는 첫 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가라 13장 1절은 말합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여러분을 깨끗케 하고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은 우리가 약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고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자신들은 절대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 자신의 판단일 뿐입니다. 담배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귀히 쓰는 그릇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 이든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도 자동적으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느냐 못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각 사람의 신앙과 순종에 달려

신년 설교



2005년 1월 1일(토) 오전 9시(1부), 오전 11시(2부)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귀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를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오시어 여호와와 기쁨을 배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정말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천히 쓰는 그릇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존귀한 그릇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귀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 쓸모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를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오시어 여호와와 기쁨을 배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정말 알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2005년 시무직분자요람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전에 발간된 2005년 시무직분자요람의 특징은 한때 '시무' 중인 직분자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받았으나 공예배참석이나 헌금생활을 비롯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직분자는 제외하였습니다. 한때 시무중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무직분자요람에서 제외된 직분자들 가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 성실히 '시무'할 경우 다시 '시무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 4:1)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충성보다는 게으름과 나태로 일관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성된 그릇이 되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 오늘(26일) 4부예배 후 고구려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오늘(26일) 찬양예배 시 2004년 제6차 학습세례식이 있습니다.
- 오늘(26일) 찬양예배 후 공동회합이 있습니다.
- '충현 중창의 밤'이 금주 금요일(31일) 시에 있습니다.

2005년 제1차 성찬식: 다음주일(1월 2일) 1부에서 5부 예배 시에

LORD'S DEATH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6)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January 2005, and in our church, it is the time for believers to participate in the Lord’s Supper. Every time you come to the Lord’s Supper, you must remember Christ whom died on the cross. For when you truly look at the cross of Jesus, you see only one answer to life, which is the grace of God. Spiritually then, you witness the Lord’s death through prayer with your heart, mind, and spirit. Please do not lose your focus, so that you do not end up witnessing the wrong things. The Lord’s Supper is strictly about witnessing the Lord’s death. It is not a time for talking to God about other matters. The Lord’s Supper is a special opportunity for you to think only about God’s grace. Ephesians 2:8 reminds u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You need the Lord’s Supper to think about the grace of God. Jesus died to save you. He sacrificed his life for you. He gave you everything He had. The business at His Table concerns redemption and life, not welfare issues concerning you, family, or friends. Therefore, before you eat the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think about what the Lord’s death means to you.

The Lord’s death takes care of your past life. His death forgave your sins. When John the Baptist saw Jesus, he declare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n. 1:29). Do you believe it? Sin separates you from God. You were born with it, and God hates it. Not only does God hate it, but also no on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if sin is present. It is impossible. Romans 5:9 says, “Much more then, having now been justified by His blood, we shall be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rough Him.” The Lord Jesus is sinless. His birth, life, and death contained no sin. His death was the only payment God could receive for your sins. 1 Peter 1:18-19 says, “knowing that you were no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like silver or gold from your futile way of life inherited from your forefathers, but with precious blood, as of a lamb unblemished and spotless, the blood of Christ.”

The Lord’s death takes care of your present life. His death is your present redemption. 1 John 1:7 say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Do you believe it? Jesus continuously cleanses you from sin. As you live out the cross He made for you, Jesus forgives your wrong doings. 1 John 1:9 says,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righteous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He releases you from your sins by His blood. It is a life long process. Revelation 1:5 says, “and from 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ruler of the kings of the earth. To Him who loves us and releases us from our sins by His blood...”

The Lord’s death takes care of your future life. It makes you perfect. It gives you eternal salvation. Philippians 3:21 says Jesus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humble state into conformity with the body of His glor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Do you believe it? 1 Thessalonians 4:16&17 says,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The grace of God has brought salvation to you, instructing you to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desires and to live sensib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is present age,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 (Tit. 2:13)

My dear friend, the Lord’s death deals with your past, present, and future. His death takes care of everything. Please take the time now to open your heart and let the Holy Spirit show you the grace of God. As you examine yourself, let the Lord’s death humble you and prepare you to accept His Supper. Amen. 🙏

다음 주일 설교

주의 죽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김성관 목사

오늘은 2005년도의 첫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하게 바라볼 때 인생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해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영적으로는 마음과 뜻과 영으로 기도함으로써 주의 죽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나서도 영통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주의 만찬은 주의 죽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주의 만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중요한 것은 구속과 생명이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의 행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 전에 주의 죽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해결된 죄의 문제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과거를 해결해 줍니다.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죄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죄가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주의 출생, 생애, 죽음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오직 여러분의 죄 값을 하나님께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현재 우리는 구속의 은혜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현재 삶을 돌봐줍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현재에도 구속의 은혜를 누립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는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평생 계속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미래를 돌봐줍니다.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완전히 합니다.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을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십니다(딤후 2:13 참조).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돌봐줍니다.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봐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주의 만찬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아멘. ㄴ

정로칼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나팔이 되는 교회



전 홍철 (정로, 선교위원장)

은 천하에 다니며

교회의 절대사명은 선교이다. 왜냐하면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마 28:18-20).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2년부터 총현교회의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단기선교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신교로 성경적인 선교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처럼 총현교회 선교위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2004년도에도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었다. 무수한 천국일꾼들이 땅 끝 오지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므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2005년도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에게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2005년 선교를 위한 사역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선교를 지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나 생각들을 배제한다.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선교가 되도록 순종할 것이다. 또한 사역지역은 점점 더 넓혀야 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 따라서 북방 얼음산이든, 남방 산호섬이든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복음을 전할 계획이다. 주님의 은혜로 2004년도에는 2,027명의 천국일꾼들이 복음을 전했다. 2005년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500명 이상 선교사들을 보내고자 한다. 주님께 헌신된 천국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선교방법도 기존의 방법과 더불어 ‘헤트러지 니어스(Heterogeneous Method: 상류층 공작 전도 방법)’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계가 영적으로 점점 더 악화해 가고 있다. 이에 우리의 선교사역에도 해를 거듭할수록 더 많은 압박과 박해에 직면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탐장을 위한 선교대원들의 영적 재무장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선교대원들의 영적무장 없이는 결코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영적으로 준비된 자,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자, 어떤 압박이나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공사로써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선도로 보낼 것이다. 이러한 대명제 아래에서 2005년도 단기선교를 다음과 같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

선교사역 정신

선교사역 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 정신이다. 한국인 선교사, 현지인 교회의 도움은 프로그램으로 받지 않으며 현지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둘째, 개척 정신이다.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족속에게로 가야 한다. 이미 복음이 들어 간 나라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혀 안 들어 간 지역을 찾아가야 한다. 그리고 선교사나 교회가 이미 있는 지역은 금급적 피해야 한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교이다. 순수하게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선교를 해야 한다. 넷째, 모든 성도가 동참하는 선교이다. 우리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다함께 참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선교하는 것이다.

선교지 선정원칙

선교지 선정원칙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지라고 판단되면 그 곳이 어디든지 간에 찾아가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나라로 선교 팀에서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선교정보를 충분히 입수하고 선교국과의 관계관리가 건실히 형성(지도층이나 주교, 성직들과 인터뷰와 같은 매체로 접촉되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으며 또한 선교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추천국가의 선교정보를 받아서 가는 것이다.

1차 추천국가는 정교회(동유럽)-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2개국), 아프리카-인도네시아(1개국), 캄보디아(1개국)-인도, 동말레이시아(2개국), 중국-몽골권

(아시아)-몽골, 중국(내몽골) (2개국), 동남아시아-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4개국), 북수 지역-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PNG) (2개국), 총 13개국으로 선정하였다. 그 외에 국가들도 정탐이나 정보입수 후 추천국으로 선정하여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선교팀 구성 및 기간

교회의 성도 2,500명 이상이 나갈 수 있도록 선교팀을 구성하되 한 팀은 최소 8명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팀의 특성상 교구팀, 부서팀, 부서별 교사팀, 교회직원팀, 지회팀으로 나누었다. 먼저 교구팀은 139지역 팀이 지역별로 12명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1,668명이 되게 계획하였다(139개 지역X12명, 1,668명). 부서팀은 19교구 중심으로 하되 중동부: 80명, 동동부: 150명, 대학부: 400명, 청년1부: 50명, 청년2부: 50명으로 하여 730명이 되도록 하였다. 방학기간에 나가는 팀은 중·고동부를 필히 팀에 참여시키기를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지금부터 나라를 정하여 준비하기를 바란다. 부서별 교사팀은 영아부, 애마부, 소양부, 외신부 등에서 구성하되 70명을 계획하였다. 교회직원팀은 상근직원을 중심으로 50명을 계획하였으며 지회팀은 찬양대, 봉사부서, 기타 지회의 경우 1팀 이상 구성하되 교구에 소속되어 교구팀으로 파송된 후 2차로 가는 경우에만 허락하였다. 그리고 대원들이 지회 및 부서팀으로 파송될 시에는 교구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했다. 파송 기간은 10-12일로 하되 지역 및 팀 특성에 맞추어 기간을 조정하도록 하였다. 파송 과정은 총 3차의 심사과정을 두었다.

CMTC 훈련

서두르도록 이미 밝힌 것처럼 2005년도 선교의 최우선 원칙은 바로 영적 준비이다. 따라서 오직 영적으로 준비된 팀들만 나가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선교대원들의 영적 준비를 위해서는 선교훈련이 필수적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CMTC훈련을 더욱더 심도있게 진행해나가고자 했다. 선교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교육함으로써 우리 교회의 선교방향을 더욱더 잘 이해한 가운데 선교에 참여하도록 했다. 팀 훈련은 팀 구성에서부터 파송까지 20회 이상 가져야 한다. 팀 훈련도 영성훈련을 최우선으로 하여 출발 1개월 전까지 4회 이상 하되 교구 및 부서 지도 교역자가 ‘십자가의 도’란 주제로 인도하도록 했다. 그리고 팀별로 매주 금요일회에 팀 단위로 참석하여 교회적인 일치를 경험하며 전 대원들은 출발 전까지 반드시 사도행전을 2주 이상 읽어야 한다. 지도훈련으로는 각 개인이 파송 전까지 반드시 1명 이상의 회심자를 얻어야 한다. 지도훈련은 팀별로 기도일정표를 작성하여 시행하되 릴레이 급식기도 및 주일 오후 선교교회에 참석하여 기도후원자 3명씩을 선정하여 기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언어훈련은 선교위원회에서 지정한 25개 문장을 필수적으로 암기하되 팀별로 모여서 이를 확인하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해야 한다. 특별히 탐장훈련을 더욱 철저하게 할 것이다. 복음적으로 선교를 하데 있어서 전도지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전도지도 전 대원들의 전도지를 더욱더 수정 보완하여 번역, 표현상의 오류를 없애고 권역별로 세분화하여 가블릭권, 정교권, 힌두권, 회교권, 불교권, 공산권,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전도지의 종류도 교구선교팀에서 사용하는 것과 대학, 청년부 선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지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겠다.

영혼을 향한 복음의 나팔

우리들이 이토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영혼구원에 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시어 모든 민족들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 총현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기간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는 더욱더 헌신된 그리스도의 선교일꾼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내 교구, 내 부서, 내 지역이라는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열망으로 교구, 부서를 초월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강한 군함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1개월이나 6개월씩 아니면 더 이상의 기간이라 할지라도 함께 가는 선교의 불 붙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경험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은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게 하소서!”

* 작은 나라들일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상류층과 먼저 교류할 수 있는 전자 그룹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 헤트러지 니어스(Heterogeneous Method: 상류층 공작 전도 방법) 방법이다.

2005년 충현교회의 전도

전교인이 1인 1명 전도, 전도하는 전도회로

전도위원회는 온 교회가 1년에 1인이 1명씩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며, 특히 교회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126개 전도회를 중심으로 1년 내내 교회주변을 전도하는 데에 총력을 다한다. 2005년도의 전도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저녁 찬양예배 후 구역장과 장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 글은 그때 발표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충현교회의 전도 원칙

충현의 성도들은 직접 복음전파를 통해 전도한다. 이 말은 반드시 상대와 마주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지 않고 물질이나 인적, 행정적인 지원만 하는 간접적인 전도는 지양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 교회는 2004년도 말까지 그동안의 간접전도를 모두 정리했다. 이제는 모두가 직접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2005년 충현교회 전도 목표 / 1년에 1인이 1명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

1년에 1인이 1명씩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킨다.

각 구역에서는 111전도(1년에 1인 1명 전도)를 위해 구역장, 지역장, 구역장 확인하여 전도대상자 명단을 확보하여 관계전도(대신자전도)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매 주일 전도대상자 작성 현황과 교회등록 현황을 확인하고, 각 구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도하여 등록시킨 다음 구역별 전도대상자를 초청하여 전도 집회를 갖는다. 그리고 전도활동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지속한다.

교회학교는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부서의 특성에 맞게 부서 자체에서 전도계획을 세워 전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1회 이상 교회주변 전도를 실시할 수 있다. 매 주일 각 부서별 새 가족 현황을 확인하고 각 부서별로 새 가족환영회, 초청 전도 집회를 갖는다.

한편 126개 전도회는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교회주변전도에 집중한다. 교회 주변전도를 위해 테헤란로, 동호대로, 봉은사로, 연주로 부근 지역을 18개로 분할하여 1-18구역에 각각 할당한다. 126개의 전도대는 할당된 지역에서 월 2회 이상 전도활동을 하고 충현전도대 전도대원은 각 구역별로 주 1회 이상 구역 지역 전도를 실시

한다.(교구별 할당 지도는 전도위원회에서 얻을 수 있다)

총력 교회주변전도와 교회주변전도의 좋은점

교회주변을 도보로 5-20분 거리에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내의 모든 주택과 업소를 한 집도 빠짐없이 축조한다. 가서 전도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람을 만나 한 한마디와 할지라도 복음적인 전도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126개 전도회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 나오는 날에 조금 일찍 나와 전도 구역에서 전도하는 주일에는 전도회 월례회를 마친 후 전도회원들이 다함께 전도를 나간다. 수요일은 구역장 영성훈련을 마친 후 여전도회가 전체적으로 각 교구 담당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한다.

교회 주변전도를 이렇게 넓은 지역의 노방전도에서 좁은 지역의 축조전도로 바꾸어 실시하게 되면 전도자들이 도보(5-20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온 교인들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교회주변의 사람들을 관계전도의 대상으로 삼으면 매우 지속적으로 전도할 수가 있다. 또한 전도 후, 결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가 쉬우며 가시적으로 전도 대상자가 보이므로 교회에 올 때마다 전도자가 언제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구역의 개회 전도회가 피차 협력하며 할당 된 지역 내에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다.

2005년 충현교회 전도를 위한 기도제목

첫째, 전 교인이 영혼을 불쌍한 여기는 마음으로 '1인이 1명을 전도' 할 수 있도록. 둘째, 126개 전도회 사령의 역사에 힘입어 담대한 마음으로 교회주변전도를 실시함으로써 온 교회가 영혼을 건지려는 열심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교회주변), 내일은 땅 끝(단기선교)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단기선교를 통하여 전 교인들이 구원의 열정 가운데 있었다. 이제 단기선교의 열정을 힘입어 교회주변전도에 접목하여 교회주변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명령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 유대와 사마리아(교회주변), 내일은 땅 끝(단기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교회주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길 소망한다. 초대교회의 전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수요일 예배 메시지

마리아의 찬송
(눅 1:46-56)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들을 찾아온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축을 맡히주시며, '여인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구약의 역사는 주님의 탄생 이전부터 예언되었고, 시공간 안에서 실재적으로 이루어졌다. 구약에서 이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주님은 기쁘고, 모사,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하신 왕이다. 예언된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인간들은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 원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오직 죽음의 그늘만이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인간들은 영원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 이 구약의 역사는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역사가 아니다. 아주 실재적인 사실이다. 바로 한 여인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다.

비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찾아주신다. '마리아여 무사할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눅 1:30). 마치 이 장면을 이같이 관에서 묘사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비슷하다. 이런 일은 우리의 지·정·의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또한,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기독교가 온 종의 종교임을 깨닫고, 대를 전한 전통으로 인하여 온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온종의 역사이다. 계속해서 전하는 마리아에게 전한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눅 1:31). 그리고 이어서 천사는 다윗의 왕가에 영원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자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와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지게게 주시리니 영원히 아람의 집에 왕 노릇 하시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2,33).

마리아가 처음 들은 이 약속은 약속을 성취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마침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메시지도다. 이 음성에 마리아는 고백한다. '나는 사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눅 1:34). 아직 말한지 주님을의 지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5).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성령이 임할 때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시작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개신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개신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결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찬 208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주 예수이다(눅 1:37).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리아는 기뻐하며 찬송한다.

마리아는 구주로 인하여 기뻐한다. '내 영혼의 그욕히 감은대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찬 469장). 마리아는 구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한다(눅 1:47). 특별히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도(눅 1:48).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보았듯이 은총의 자녀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깨닫는다. 다말, 라합,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신다. 암산한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도 찬송한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네 주의 도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눅 1:42,43). 특히 엘리사벳은 '내 주'에서 '주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보았던 것이다. 마리아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도 구원을 주실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송한 것이다.

마리아는 구주의 신성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도다'(눅 1:49).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한다. 구체적으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이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찬송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들로 교만한 자를 흠스리고, 근세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결국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신다(눅 1:50-53). 주님은 친히 성육신하셔서 머리 돌 곳조차 없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는 세상의 뜻과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말과구여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 종 아브라함을 두오서 긍휼히 여기시고 거역하시도다'(눅 1:54).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지켰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하신다 하느니라'(눅 1:55).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방을 향한 축복이 비친 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현재 여러분의 찬송 제목은 그리스도안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신성하십니다. 약속의 성취자이십니다'라고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교학교

새가족부 교육을 받으며

"십자가만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1996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러나 그지 교회를 다닐 뿐 제 마음에 어떤 기쁨과 평안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이 여러 군데 약하기 때문에 늘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0년에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후 저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니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졌지만,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운 것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현재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도 오래 됐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생각하던 중 어떤 집사님께서 권면하셔서 새가족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즘에는 새가족부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게다가 부족한 저에게 맞는 일거리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헛된 욕심들을 많이 욕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가끔 제 안에 헛된 것들을 좇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저는 믿음이 생길수록 죄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흘린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려 합니다.



김형집(집사, 12교구)

다음주일 찬송

281장 아무 흠도 없고

2005년 새해 첫 주 성찬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찬양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잔의 맛"이라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작사 작곡된 찬양입니다. 이 곡의 작사, 작곡가는 마상이며, 아마도 한국교단에 놓한 어느 선교사가 성만찬 찬미로 작사한 것이라 추정됩니다.

- 1절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베른 1:19)라고 성경은 설명한다. 그러기에 속죄 제물로 사용되신 것이다.
- 2절은 구약시대에는 속죄 제물 어린양을 제단에서 잡았으나 신약시대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 형틀에서 피 흘림으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다.
- 3절은 예수의 십자가 피 흘림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보혈임을 설명한다.
- 4절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약사이며, 영생의 진임을 설명한다.
- 5절은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며 늘 사모하던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반기가 뵈겠다는 것이다.
- 6절은 사랑하는 주님을 반갑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가 분부하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여 결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새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힘있게 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단.

(찬양위원회)

세 · 가 · 족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961	박효성	7	장년1부	2972	정복춘	19	외선부	김경숙(1)	
2962	이오성	13	청년1부	2973	박영순	19	외선부	정현민(1)	
2963	권오현	19	대학부	2974	이정아	6	대학부	이진규(6)	
2964	김종삼	19	청년1부	2975	박득순	14	장년2부	정명선(14)	
2965	조종만	8	장년1부	2976	양희관	18	장년1부	양성연(19)	
2966	오진홍	17	청년2부	2977	김수현	19	고등부	이연범(6)	
2967	김재근	10	청년2부	2978	정복순	19	청년1부	이창지(19)	
2968	이시원	3	장년2부	2979	백재승	19	대학부	이원정(4)	
2969	김영범	19	청년1부	2980	문미애	18	청년1부	윤호순(1)	
2970	김현재	3	장년2부	2981	김수진	19	청년1부	유지철(16)	
2971	김영애	3	청년2부						

* 송진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문 203호 새가족 등록설 오시기 바랍니다. *

크리스마스

해마다 늘 그렇듯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나의 구조로 오신 평강의 왕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만한 영상의 크리스마스 이미지가 떠올라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피의 선물은 산타클로스의 선물로 하여금 그 의미가 무해해졌다. 단락을 정해놓는 케틀은 크리스마스를 구속사적인 의미의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축제로 변질시켰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어야 하는 우리의 입술은 불운한 이웃을 돕자는 구제활동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교묘한 수단으로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과 세상을 타락으로 내보내는 계기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술 취했고, 방탕했고 음란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안에서 똑같이 놀아났다.

얼마 전, 기독교 학교인 우리 학교에서 누가복음 성경교사를 열어 문화상품권을 주는 행사가 있었다. 나는 이 상품권에 통해 누가복음을 열렬히 외쳤다. 그러나 성경을 외우면서 나는 하나님께서는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위한 예비 작업으로 누가복음 성경교사를 허락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나의 신앙적 태도를 반성하고 회개하였다. 내가 매일 날째대로 묵상했던 잠언은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서 좋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한 기복 신앙의 방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수를 적어놓고 잠언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내 안에 좌절하시는 성령님을 무시한 죄 오래되었음을 느꼈다. 감동 없이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다. 내 힘으로 내가 했으니 그걸 어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러면서 나는 상품권 타자고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읽었으니 너무 나 죄송한 노릇이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보니 누가복음 한 장 한 장에서 느껴지는 감동과 놀라운 영감! 예수님 그 자체였다. 예수님의 기이하신 탄생, 그리고 모사로 오셔서 나의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고 이시고 위로하시며 상급해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사탄에게 능히 승리하시고 또 강자 악의 세력을 영원히 잠재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천국에서 영존하실 나의 아버지, 만왕의 왕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최성으로 목장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 안에 갇힌 주님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되었다. 낙약하고 부끄러운 추하고 더러운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신 주님이 정말 좋다. 진짜 주님밖에 또 누가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자녀인 나에게 찬양의 참미미를 알려 주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이미 죽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매일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보자. 세상에서 우리는 축제가 아닌 진정한 내 마음의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려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외지의 영혼들에게 주님 주신 입술로 주님 주신 뜨거운 심장으로 외쳐보자.

"예수님 믿으세요!"

고혜진(고등부)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신 주님

일요일 아침만 되면 습관처럼 악기를 들고 교회에 가서 예쁜 찬양대에서 봉사했던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악기만 뽐낼 줄다 그 집에 돌아온 날이 너무나도 많았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초원으로 나를 인도하시니...' 찬양이 끝나고 나는 많은 눈물을 흘렸다. 내 마음 속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가사를 들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악보의 음계를 보고 악기 불기에 바빴던 나. 이기심에 빠져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악기만 불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알게 하셨다. 내가 헛된 일을 행했을 때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주님. 이런 주님의 큰사랑을 몰랐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주일은 교회에 가는 날이니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한 발, 한 발 내 디딜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구하셨던 것처럼 제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주님께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길 원합니다. 제 마음 속의 중심이 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지원(고등부)

교회행사일정

2005년도 교회 주요 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날 짜	행 사 명	주관부서
1월	거울성경학교, 거울수련회 (1월, 2월)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1 (토) 신년 예배(오전 9·11시) 2 (주) 제1차 성찬식 5 (수) 정기당회 헌신예배(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9(주)/16(주) 계절학교 교사 강습회 30 (주) 선교주일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제1·2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5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4차 성찬식 정기당회 헌신예배(교구위원회 1) 어버이날(어린이주일, 가족연합예배 1,2부) 임직예배(제37대 장로) 성령강림주일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교육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6 (화) 7 (수) 11 (주) 20 (화)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주간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2 종강) 정기당회 헌신예배(찬양위원회) 충원전도대 훈련(후반기)(10/26 종강) 남성구역장훈련 (11/22 종강) 제62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7 종강) 제32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11/27 종강)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	예배·찬양위원회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당회서기
2월	거울성경학교, 거울수련회 (1월, 2월) 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경로심방 (1월, 2월) 단기선교팀 파송 9 (수)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재의 날) 16 (수) 정기당회 헌신예배 (예배위원회) 18(금) 제1차 청지기훈련 27 (주) 제1차 학습세례식	교육위원회 충원장학회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6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헌신예배(안수집사회) 제2회 제직회 15-16(수목) 계절학교 교사 강습회 17 (금) 제2차 청지기 훈련 26 (주) 제3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제1·2교구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10월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헌신예배(전도위원회) 피택장로(주제발표) 제5차 학습세례식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 제3차 청지기훈련 종교개혁주일	신교위원회 신교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의당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3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2차 성찬식 정기당회 헌신예배(신교위원회) 충원전도대 훈련(전반기) 남성구역장 훈련 제61기 교사양성부 개강 (5/29 종강) 제31기 찬양대양성부 개강 (5/29 종강) 주간성경공부 1학기 개강 (5/31 종강) 종려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21-25(월-목)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23 (수) 임시당회(일문후보·장로, 안수집사, 권사) 25 (금) 성 금요일 집회(제3차 성찬식) 27 (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 찬양예배 일문 후보 공교 (주간충원)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전도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인사위원회	7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제5차 성찬식 백주감사절 예배 정기당회 헌신예배(권사회)	교육위원회의각기관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11월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9월~11월) 단기선교팀 파송 제7차 성찬식 정기당회 헌신예배(교구위원회 2) 추수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추수감사주일 특별찬양예배	위원장협의 인사위원회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찬양위원회
4월	대심방 (3월~6월) 단기선교팀 파송 3 (주) 공동의회(일문후보·장로, 안수집사, 권사) 6 (수) 정기당회 헌신예배(1·2·3 교구위원회) 10 (주) 피택자 교육개강 (10/8 종강) 24 (주) 제2차 학습세례식	교구위원회 신교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교육훈련원 예배위원회	8월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지급 정기당회 헌신예배 (신교위원회 2) 제4차 학습세례식 10 (수) 28 (주)	교육위원회의각기관 신교위원회 충원장학회 당회서기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12월	절기구제(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임시당회 (결산/예산) 14 (수) 특별제직회 (결산/예산) 18 (주) 은퇴자·근속자 포상 20 (화) 성탄축하 찬양의 밤 23 (금) 메시야 연합 찬양 25 (주) 성탄감사주일(가족연합예배 2, 3부) 제6차 학습세례식 공동의회 (결산/예산)	봉사위원회 신교위원회 당회서기 당회서기 당회서기 인사·행정위원회 제1·3교구위원회 찬양위원회 예배위원회 예배위원회 당회서기

